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현장을 가다!

고객홍보처 이명재 과장



▷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20개 대학에서 40개 팀(2인 1팀), 총 8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소, 돼지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단순한 품질평가 체험이 아니라 우리 축산물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보고, 축산물 유통과 품질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참여형 교육인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를 전한다.



△ 1회부터 8회까지 매년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위해 협조해주고 있는 팜스토리한냉의 채용설명회. 우수 인재 발굴이라는 이 대회의 취지에 맞게 대회에 참가한 우수 인재들에게 팜스토리한냉과 이지바이오 계열사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었다.

▽ (5번? 8번?) 5번과 8번 사이에서 고민하면 어떡해! 차이가 너무 크잖아. 보면 볼수록 더 헛갈리는 건 무슨 경우? 그래도 다행인건 이런 상황은 참가한 모두한테 똑같았다는 것.



△ 오늘만큼은 축산물품질평가사. 대상 수상자 건국대 원준필 학생은 “평가사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빼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실기 평가에 임했겠지?

▷ 실기 끝! 결과야 어떻게 됐든 두 달 동안 열심히 실습했으니 그걸로 됐다. 그래도 상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론 평가만 생각하자.



△ 긴장감이 넘치는 영어 면접장. 긴장감은 대기실까지 이어졌다. 대기할 때 면접장에 들어가면서 인사로 'Hello'가 좋은지 'Hi'가 좋은지를 진지하게 상의하다가 누군가 지나가며 '그냥 Good afternoon'이라고 했더니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을 짓던 영어 인터뷰 응시자. 긴장을 풀어보려 웃음을 짓긴 하지만 손은 긴장을 숨길 수 없었나보다.



△ 이론평가 전 의자만 있으면 어디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참가자들. 혼자 공부하는 나홀로족들이 많은 것을 보면 역시 공부하는 남이 시켜주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보다.



△ 문제가 어려워서 변별력이 높았다는 이론평가. 충분히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글자와 종이만 구분할 줄 아는 신비한 능력을 다시 한 번 경험한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실기와 이론평가 결과를 채점하느라 고생 중인 심사위원단. 참가자만큼이나 비장하다.



△ 행사 진행을 위해 달려온 새내기 축산물품질평가사들. 여기에도 대회 출신이 네 명이나 있다. 선배들도 다 겪어온 길이니 힘내!



▷ 시상식 전 진행된 한국축산식품학회 김영봉 회장님의 '축산식품의 현재와 미래' 강의. 축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축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셨다.



▷ (미생물학은 어떤 교재로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시네요. ^^)
 일곱 번의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통해 배출된 축산물품질평가사만 31명. 그런 만큼 참가자들은 이 대회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용문으로 기대한다. 그래서인지 시상식 전 진행된 채용 설명회에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 대회 참가 영상. 찍을 때도 민망했는데 보니까 더 민망해. 그래도 나만 빼고 다 즐겁잖아? 그럼 됐지 뭐.



△ 와!! 이거 실화야?"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영예의 대상! 소 부문은 건국대학교 '고기아이먹니'팀, 돼지 부문 역시 건국대학교 '주경야돈'팀! 이번 대회는 소, 돼지에 각각 걸린 대상을 모두 건국대학교에서 가져갔다. 서울지원의 교육 효과가 특특했던 것으로 평가한 우승팀의 환호가 행사의 끝을 알렸다. 🍗